



‘필Feel’ 통하는지 만나보고 골라요!

월급날 책 사는 CEO,
나비커뮤니케이션스 허미하 대표

감각은 2순위, 자기 컨트롤과 릴레이션십이 '패션의 필요·충분조건'

유난히도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갖가지 의상으로 짝 찬 사무실로 들어섰다. 열 발자국 남짓 내딛었을까. 남색 셔츠형 원피스에 긴 목걸이를 착용한 멋쟁이 여인, 연예계 마당발로 통하는 여인이 사람 좋은 미소로 손님을 반긴다. '그의 방'이라 명명된 '이사실' 벽에선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사진과 나비 이미지들이 인사를 건넨다. 세련미와 개성이 한껏 드러나는 공간. 그러나 패션브랜드 홍보 대행사 나비 커뮤니케이션스 허미하(40) 대표이사의 공간은 초행 방문자를 불편케하는 거만한 세련미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세련미를 뽐내지만 편안함'이란 수식은 허 이사가 강조하는 '패션 브랜드 홍보맨'의 요건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편안한 미소로 일관하며 처리할 일만은 아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곳의 의상을 가져와서 잡지에 화보도 내주고, 현재 드라마를 하는 최진실, 명세빈 같은 연예인 측과 협의해 의상협찬도 하지요. 이른바 스타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패션쇼를 직접 기획,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많고, 시종일관 설 틈없는 일이지."

처음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발을 내딛은 허 대표는 프랑스 유학 후 파리호 부티크에서 코오롱을 거치며 디자인과 패션 브랜드 홍보 노하우를 두루 익힌 인물이다. 그리고 2003년도에 자신의 회사 나비 커뮤니케이션스를 창립하며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홍보맨으로 알려져 있다.

혹자는 종종 그에게 패션 브랜드 홍보맨은 순발력 혹은 감각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허 대표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라며 감각을 2순위로 내려놓는다. 기자, 연예인, 감독 등 관련자들과 막역한 친구가 되고 그들과 소통해야만 브랜드 PR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일상은 사람으로 꽂 들어차 있다. 실시간 릴레이 미팅의 반복이 계속된다. 슬쩍 공개한 수첩 속 오늘의 일정만도 1시, 3시, 6시로 숨이 가쁘다. 여기에 인터뷰 도중 또 한 건의 미팅약속을 했으니, 그야말로 사람 만나다가 진을 다 뺀다.

"직업 특성상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하고, 상대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점에선 연예인과 동병상련이라고 할 부분도 있어요."

대중심리처럼 패션은 가변적이거든요. 의리가 없고 배신을 잘 하죠. 청바지가 뜨나 했더니 어느 순간 짧은 스커트가 유행하고 그새 청바지는 잊혀집니다. 저희 역시 '베신' 혹은 '변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폴 오스터, 아멜리 노통, 장 자크 쌍빼는 나의 연인'

연예인 못잖게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는 갖가지 스트레스를 독서로 해소한다. 다수 CEO들이 술, 여행, 운동을 택하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잠시 잊고 싶을 때 공간과 시간이동을 쉽게 해주는 매개물로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본다. 거기까진 그렇다 치고, 실제로 귀를 쫓긋 세우게 하는 대목은 허 대표만의 독서편력에 관한 사연이다. 그의 독서취향은 그만의 마니아적 감수성을 그득 내뿜는다. 혹시나 해서 좋아할 만한 몇몇 작가들의 이름을 언급하니, 첫마디에 손뼉을 치며 "그럼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라고 맞장구를 친다.

"마케팅 불변이니, 유튜브처럼 경영을 해야 하느니, 패션 마케팅이 어떠니 하는 책들은 별로 안 당기더군요. 사람애기를 들려주는 책을 펼쳐야 저만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사람, 상황, 시대에 대한 이해심을 키울 수 있죠. 또한 현명하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책 이야기로 모드를 전환하자마자 소녀 독서광처럼 눈을 반짝이던 허 대표는 폴 오스터, 아멜리 노통, 장 자크 쌍빼의 저작들을 애서^{愛書}로 손꼽았다. 특히 폴 오스터의 책은 우리네 인생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 공감 가는 요소가 많다. 그의 소설에서처럼 우리 인생 역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예고 없는 사건들로 인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올 여름 휴가 때는 발리로 향하면서 댄 브라운의 《매트릭스》를 포함 네 권의 책을 챙겼다. 허 대표 표현으로는, 선택하면서 킥킥 웃으며 넘겨 볼 책들이었다. 여러 경영자들이 경영 자체를 위해, 시장 흐름과 성향을 알기 위해 책을 펼친다면, 그가 책을 집는 이유 그리고 손에 집히는 책들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에게 책은 휴식 혹은 '비타민' 이고, 전쟁 같은 내일 하루를 잘 견디기 위해 기댈 어깨를 내주는 연인도 된다.

생각해 보면 책과의 인연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하셨던 아버지 곁엔 짐처럼 책을 지고 다니는 지인들이 많았다. 전집이 유행했던 어린 시절 그는 자연스레 책과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책을 많이 읽은 덕에 얻은 게 많았다. 어휘력도 남들보다 뛰어났고, 글재주도 있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낼 때마다 여지없이 당첨이 됐다. 패션홍보 업무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20분 만에 딱딱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글과 친한 덕분이었다.

매달 월급날 사놓는 다섯 권의 책은 한 달치 '비타민'


트렌드를 재빨리 읽는 일을 하지만 책 구입 시 허 대표의 방법론은 첨단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건 사실

이지만 온라인 구입은 사절한다. 직접 서점에 나가서 점찍은 책과 '통성명' 이라도 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나름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소위 '필Feel' 이 통할 듯한 친구(책)를 발견하면 얼른 메모를 해뒀다가 직접 서점에 나가 친구가 될 법 한지 직접 보고 판단한다. 물론 내용만이 아니라 제본, 지질, 서체, 책날개 등을 꼼꼼하게 봐야 내 친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월급날인 25일경 이런 식으로 매번 다섯 권의 책을 구입해 읽었다. 지금은 오랜 습관이 돼버렸으며, 그 덕분에 바쁘고 고단한 한 달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직원도 있고 성격적으로 너무 흥분하는 친구도 있죠. 보통은 자기계발서를 줄 텐데 저는 류시화 씨의 《지구별 여행지》나 달라이 라마의 《용서》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나보다 어렵지만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책으로 치면 쌍빼의 《뉴욕스케치》, 영상물로 치면 <섹스 앤 시티> 속 사람들과 닮은 삶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그는 패션업 종사자인만큼 패션과 닮은 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집착' 이 없다는 것. 이는 읽은 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가에 잔뜩 꽂아두기보단 누군가에게 종종 선물하는 게 습관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책들 역시 훗날 병원 도서관 등 책이 필요한 곳에 기증할 계획이다.

연예계 마당발이란 수사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듯, 그의 미니홈피에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였다. 막역한 사이임을 증명하듯 '언니' 라는 호칭도 보인다. 그는 연예인들의 편한 친구, 국내 100여 군데의 패션홍보대행사 중 어바웃, 구호, 바닐라비 등 유명 브랜드를 런칭한 홍보대행사 대표로 소위 '잘 나가는' CEO다. 그러나 스스로를 두곤 "남들보다 쉽게 필드에 올라간 경우"라고 겸손해하며, 편안한 미소로 일관한다.

애기 도중에도 수시로 업무를 체크하는 빨간색 그의 수첩을 보며 "폴 오스터의 《빨간공책》과 닮았다"고 말하니 또 한 번 활짝 웃으며 반색한다. 아직 미혼인 그가 마치 연인과의 약속이나 된 듯 소중히 수첩에 적어둔 것은 '십자군 전쟁'. "춘각을 다루며 사는 요즘이지만, 그는 최근 관심을 갖게 된 십자군 전쟁에 관한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곧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을 사서 읽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_김형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